

현안과 과제

■ 2017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목 차

■ 2017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2017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안 중 기 선 임 연 구 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7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 개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위협요인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부진 지속 등은 대표적인 대외 불안요인이다. 국내 경제는 취약업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위협요인 이외에 예상치 못했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하방 위협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위협요인들이 2017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7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국내외 경제에 관한 기업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2017년 세계 경제는 2016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미국의 금리 정상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둘째, 국내 경제는 2016년보다 나빠져서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본격적인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정책 공백, 경제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현재의 경기 부진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첫째, 환율과 유가는 2016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 상승 요인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1,300원/달러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도 산유국간의 감산 합의 실행 등 상승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70달러/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둘째, 기업들은 정치권이 경제문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의 정쟁 활용,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경제입법이나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D'라고 평가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A'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향후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을 감안한 산업정책 수립 등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이 필요한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현행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걱정하다는 의견이 다수(62.5%)를 차지했다. 한편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7.5%, 인상해야 한다는 비중은 10.1% 수준이었다. 김영란법

은 기업의 접대비와 선물비용 지출을 축소시켜 내수 경기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한선 조정에 대해서 기업들은 현행수준 유지를 가장 선호했고 인상폭이 높을수록 응답 비중이 낮았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첫째, 2016년 경영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예상 수준에 머물렀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의 절반이 주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지적하였다.

둘째, 2017년 경영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능동적인 경영계획 실천에 주력할 전망이다. 경영환경이 비관적으로 예측됨에도 매출, 이익 등 경영성과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기업경영 우선순위도 비상경영체제 유지와 같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경영보다 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경영 전략 실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지수는 첫째,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실적 및 향후 추진 의욕이 양호하여 소폭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존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보다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투자를 줄이거나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다. 기업들은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투자 여건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는 기업은 30.0%,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42.0%에 불과했다.

둘째, 산업별로 살펴보면 조선, 철강, 건설, 물류는 투자지수가 산업 평균을 하회했고,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IT/게임 등은 평균을 상회했다. 일반적으로 취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철강, 조선의 기업투자지수는 2016년 하반기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고, 건설, 물류는 하락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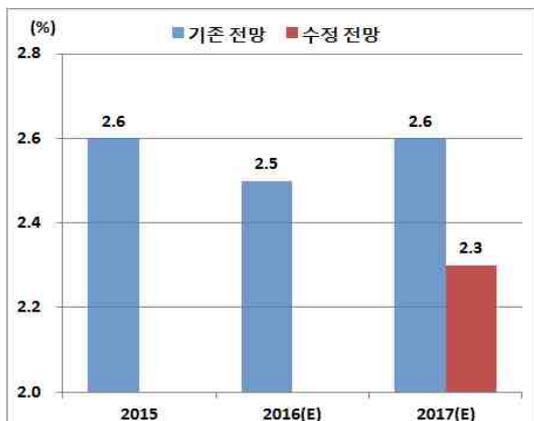
■ 시사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첫째,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 모니터링과 우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통상 마찰이 늘고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둘째, 정국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증가→수익성 향상→고용 확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1. 개요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위협 요인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중국 경제의 부진 지속 등은 대표적인 대외 불안요인
 -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트럼프의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교역 환경이 변화할 수 있음
 - 중국은 기업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보유한 가운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전망
 - 국내 경제는 취약업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위협요인 이외에 예상치 못했던 정치 리스크 발생으로 하방 위험 상승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확산된다면 소비, 투자, 고용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기존 전망치를 하회할 우려¹⁾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016년 9월 전망) 2.6%에서 0.3%p 하향 조정한 2.3%로 예상²⁾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2017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기존 전망 2016년 9월, 수정 전망 12월.

< 설문조사 개요 >

	내용
조사 기간	- 2017년 1월 2일~1월 6일(5일간)
조사 대상	- 국내 주요 100개 기업
조사 내용	- 2017년 국내외 경기 판단 - 기업경영 환경 전망 - 기업경영 예측 - 기업투자지수 관련 내용
응답 기업	- 82개 기업(응답률 82%)

1) 현대경제연구원,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경제주평(16-48), 2016.12.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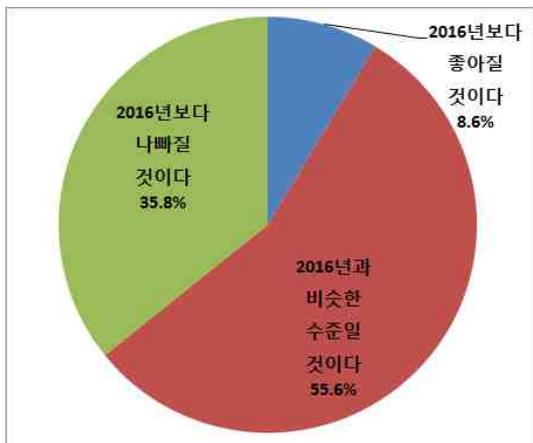
2)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정치 리스크의 경제 리스크화”, 경제주평(16-52), 2016.12.26 참조.

2. 2017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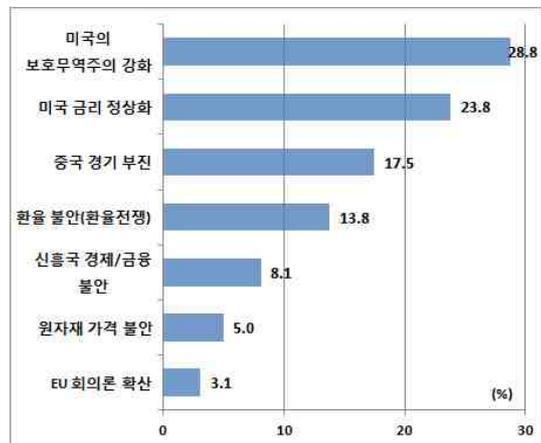
1) 2017년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2017년 세계 경제는 2016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금리정상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기 부진'이 주요 불안요인
- 2017년 세계 경제 :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2016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 2017년 세계 경제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고, '2016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35.8% 기록
 - 중국 경제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2016년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4.1%
- 대외 불안요인 :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정책 변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28.8%)', '미국의 금리 정상화(23.8%)'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중국 경기 부진(17.5%)'과 '환율 불안(환율전쟁)(13.8%)'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



< 2017년 대외 불안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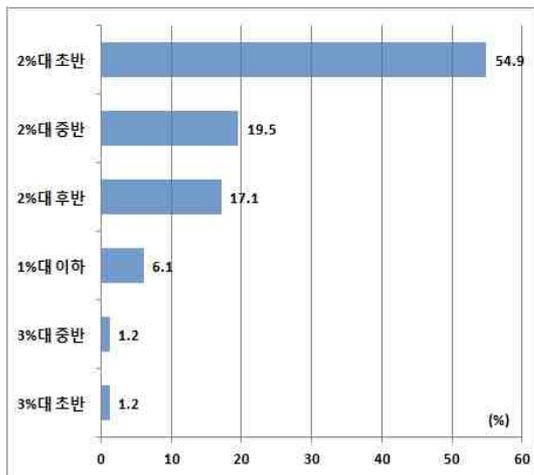
주 : 2개 이내 복수 응답 기준.

○ (국내 경제) 국내 경제는 정치 불확실성,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2016년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인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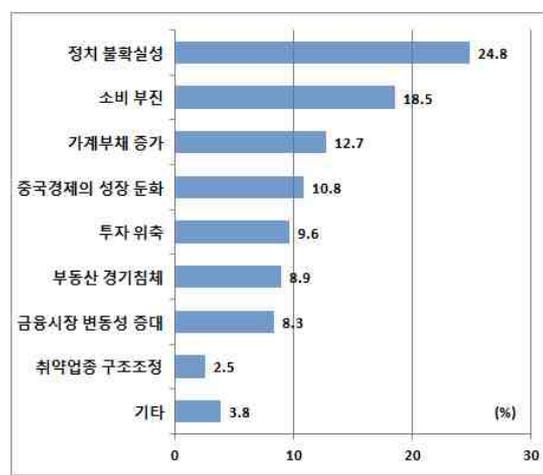
- 2017년 국내 경제 :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소폭 하락한 '2%대 초반'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
 - 2016년보다 나빠지거나(53.7%) 비슷할 것(45.1%)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98.8%에 이르며 2015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2%에 불과함
 - 경제성장률도 2016년보다 소폭 하락한 '2%대 초반'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4.9%이고, 다음으로 '2%대 중반'이 19.5%, '2%대 후반'은 17.1%를 기록
 -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적어도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2018년 상반기 22.0%, 하반기 39.0%, 2019년 이후 31.7%)

- 국내 경제 위협요인 : 주요 기업들은 2017년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요인으로 '정치 불확실성(24.8%)'과 '소비 부진(18.5%)'을 지적
 - 기업들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정책 공백 발생, 민간경제 심리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 소비 부진, 가계부채 증가, 수출 감소 등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파급 효과, 투자 위축 등 다양한 요인이 국내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응답
 - 한편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2017년 국내 경제 위협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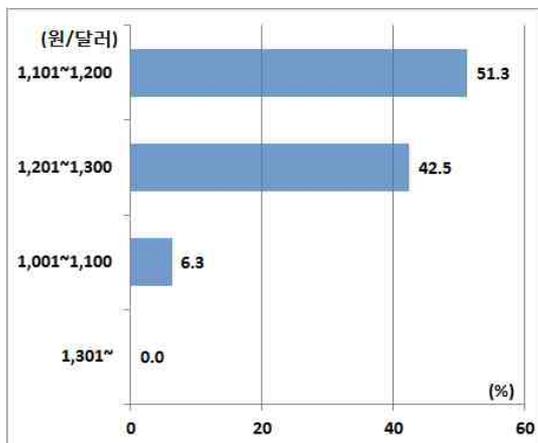
주 : 2개 이내 복수 응답 기준.

2) 2017년 기업경영 환경 전망

○ (대외 환경) 원/달러 환율과 유가는 2016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환율 전망 : 환율은 2016년과 비슷한 '1,101~1,200원/달러'에서 형성되거나 미국의 금리 정상화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1,201~1,300원/달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³⁾
 - 2017년 환율이 '1,101~1,200원/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51.3%, '1,201~1,300원/달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기업은 42.5%를 기록
 - 그러나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으로 환율 상승 요인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1,300원/달러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050원/달러(25.4%)와 1,100원/달러(22.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유가 전망 : 국제 유가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50~60달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
 - 유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40~50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39.2%, 소폭 상승한 '50~60달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45.6% 수준⁴⁾
 - 산유국 간의 감산 합의 실행 등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70달러 이상'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2017년 원/달러 환율 전망 >



< 2017년 유가 전망 >

유가(달러/배럴)	응답 비중(%)
30이상~40미만	7.6
40이상~50미만	39.2
50이상~60미만	45.6
60이상~70미만	7.6
70이상	0

3) 2016년 연평균 환율은 약 1,160원/달러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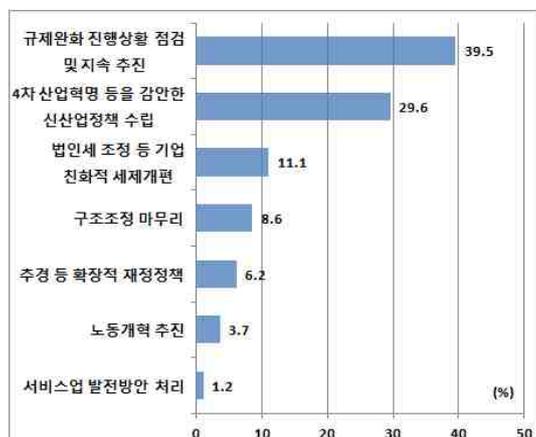
4) 2016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약 43달러/배럴 수준임.

- (경제정책) 기업들은 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하고 있는 정치권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고, 향후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
- 정치권의 문제 :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치권의 문제는 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하거나 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기업들은 '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30.0%)'하거나 '경제위기를 안이하게 인식(22.1%)'하고 있는 것이 경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
 - 이 밖에도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팽배' 17.1%, '포퓰리즘 법안 양산' 10.7%, '법인세 인상 추진 등 투자 저해' 10.7%, '규제 강화 일변도' 9.3%
- 경제정책 평가 : 국회(정치권)의 경제정책 관련 입법 활동이나 행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낮은 점수를 주고 있음
 - 기업들이 평가하는 국회의 경제입법 활동 점수는 'D' 44.9%, 'C' 25.6%, 'F' 17.9%, 'B' 11.5%이고 'A'라는 응답은 없음
 -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D' 37.7%, 'F' 33.8%, 'C' 23.4%, 'B' 5.2%이고 'A'라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정책 방향 : 규제완화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
 - '규제완화 지속 추진' 39.5%, '4차 산업혁명을 감안한 산업정책 수립' 29.6% 등 정부의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이 필요한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노동개혁 추진(3.7%)'이나 '서비스업 발전방안 처리(1.2%)'는 낮은 응답 비중을 기록

< 경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문제점 >

문제점	응답 비중(%)
경제문제를 정쟁에 활용	30.0
경제위기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	22.1
복지 등 포퓰리즘 법안 양산	10.7
법인세 인상 추진 등 투자 저해	10.7
반기업 정서 팽배	17.1
규제 강화 일변도	9.3

< 2017년 경제정책 방향 >



○ (주요 이슈) **현행 법인세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김영란법은 비용 감소를 통해 내수 경기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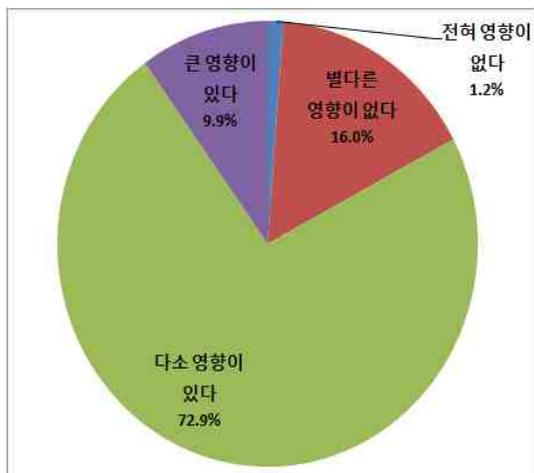
- **적정 법인세율** :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인하 혹은 인상하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이 62.5%에 이르고, ‘1%p 인하’라고 응답한 기업이 12.5%, ‘2%p 인하’ 혹은 ‘3%p 인하’라는 응답이 각각 7.5%를 기록
 -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1%p 이상 인하)한 기업은 27.5%,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1%p 이상 인상)한 기업은 10.1% 수준
 -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정치권의 논의와는 달리 기업들은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법인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되길 원하고 있음

- **김영란법 영향** : 기업들의 선물비 등 비용 지출 축소로 내수 경기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선호
 -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은 내수 경기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72.9%)으로 조사됨
 - 기업들의 접대비와 선물비용은 ‘0~10% 감소’ 27.3%, ‘10~20% 감소’ 20.8%, ‘20~30% 감소’ 26.0%, ‘30% 이상 감소’ 18.2%로 조사되었고, ‘0%(동일)’이라는 응답은 7.8%
 - 상한선 조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행 수준 유지’를 가장 선호(38.8%)하고 ‘2만원 인상’은 23.8%, ‘3만원 인상’은 20.0%, ‘5만원 이상 인상’은 17.5% 비중을 차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법인세율 인상 여부 >

	응답 비중(%)
3%p 이상 인하	7.5
2%p 인하	7.5
1%p 인하	12.5
현행 유지	62.5
1%p 인상	2.5
2%p 인상	6.3
3%p 이상 인상	1.3

< 김영란법 영향 >



3) 2016년 경영실적 평가와 2017년 경영계획

○ (2016년 경영실적)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예상 수준에 머무는데 불과했고,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내수 부진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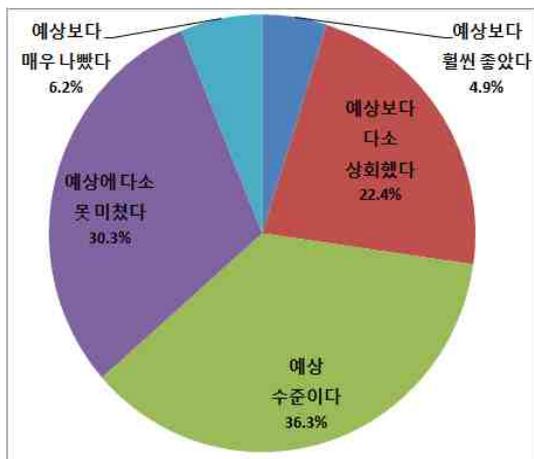
- 2016년 경영실적 : 예상을 하회하거나 예상 수준에 머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예상을 하회(‘예상에 다소 못 미쳤다’ 30.3%,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 6.2%)한 기업 비중은 36.5%, ‘예상 수준이다’는 응답은 36.3%로 거의 비슷한 수준
- 반면 예상을 상회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7.1% 수준(‘예상보다 다소 상회했다’ 22.4%,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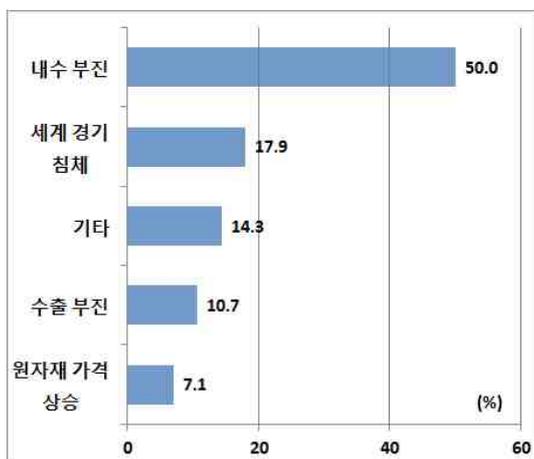
- 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 : 2016년 경영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의 절반이 주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지적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주된 이유는 ‘내수 부진’ 50.0%, ‘세계 경기 침체’ 17.9%, ‘수출 부진’ 10.7%, ‘원자재 가격 상승’ 7.1% 순서임
- 한편 실적이 예상보다 뛰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내수 호조’, ‘원자재 가격 하락’, ‘비용 절감’, ‘환율·금리 효과’라는 응답 비중이 각각 18.2%, ‘수출 확대’라는 응답은 13.6% 비중

< 2016년 경영실적 평가 >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 >



○ (2017년 경영계획) 2017년 경영목표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능동적인 경영계획 실천에 주력할 전망

- 매출·이익 등 : 경영환경이 비관적으로 예상됨에도, 기업들은 매출, 이익 등 경영성고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
 - 많은 기업들이 매출(58.1%)과 영업이익(55.3%), 설비투자(38.7%)를 2016년에 비해서 '1~10%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
 - 각종 비용 집행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40.8%) 비중이 가장 높고, '1~10%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2.9%로 다음 순위를 차지
- 신규 고용 : 약 70%에 이르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2017년 신규 고용 규모를 2016년 대비 '1~5%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
 - '6%이상 확대'할 계획인 기업은 15.0% 비중을 차지하고, 신규 고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8.2%, 고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6.9%를 기록함
- 경영 우선순위 : 비상경영체제 유지와 같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경영보다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경영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경쟁력 강화(46.9%)'와 '수익성 향상(28.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경기 회복기에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

< 2017년 경영목표(2016년 대비) >
(%)

	매출	설비투자	비용	영업이익
20%이상 증가	4.1	10.7	1.3	2.6
11~19% 증가	10.8	2.7	2.6	7.9
1~10% 증가	58.1	38.7	32.9	55.3
0% (동일)	12.2	28.0	40.8	14.5
1~10% 감소	5.4	16.0	14.5	15.8
11~19% 감소	5.4	1.3	5.3	2.6
20%이상 감소	4.1	2.7	2.6	1.3

< 2017년 기업경영 우선순위 >

	응답 비중(%)
비상경영체제 유지	7.4
매출 증대	8.6
수익성 향상	28.4
투자 확대	1.2
M&A 등 신사업 진출	7.4
기업 경쟁력 강화	46.9

4) 2017년 기업투자지수

○ (평가) 투자 여건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투자 실적 및 의욕이 양호하여 투자 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조선, 건설 등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전산업** : 투자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실적과 전망, 투자 의욕이 양호하여 기업투자지수는 소폭 개선(120.4 → 128.2)

·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2016년 투자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이 71.6%, 2017년 투자 규모를 2016년에 비해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61.0%

· 기존 투자계획에 대한 지속 추진 의욕이 강하고(90.0%), 현재보다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76.5%에 이르고 있음

· 많은 기업들이 위험이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는 점에 동의(78.8%)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5.0%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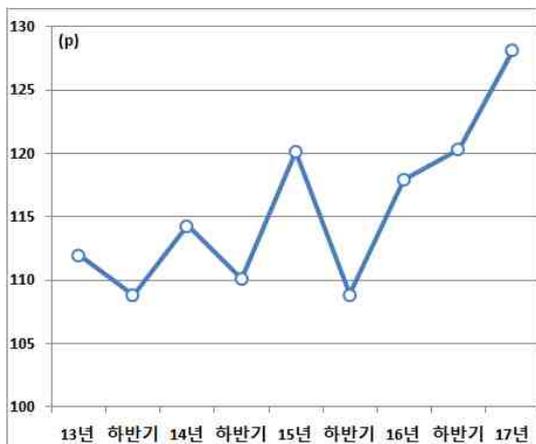
·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30%,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42.0%로 투자 여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 **산업별** : 조선, 철강, 건설 등은 종합지수가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IT/게임 등은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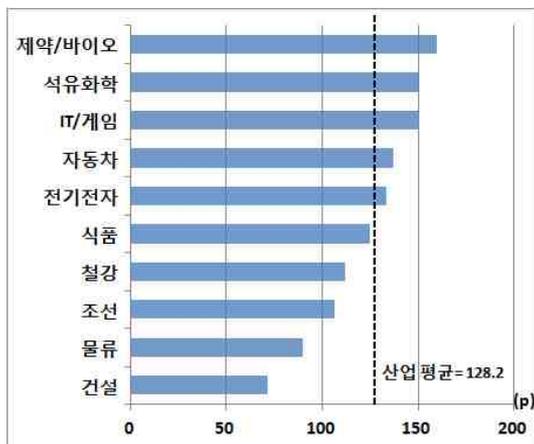
· 조선, 철강, 건설 등 취약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철강, 조선은 2016년 하반기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건설, 물류는 하락

· 제약/바이오, 석유화학, IT/게임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자동차, 전기전자는 평균을 소폭 상회

< 기업투자지수 추이 >



< 산업별 기업투자지수 >



주 : 최소 0, 최대 200이고, 기준값은 100.

3. 시사점

-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유인책 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첫째,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로의 과급에 대비한 컨던전시 플랜을 준비
 - 외환보유고 관리 및 단기외채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등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통상 마찰이 늘어나고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국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당국자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
 - 정치권은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치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에 주력
 - 민간경제 부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 셋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여건을 개선
 -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가 정신 발현을 유도
 - 금융 및 세제지원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여 투자 증가→기업 수익성 향상→고용 확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
 - 기업들도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음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홍유립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